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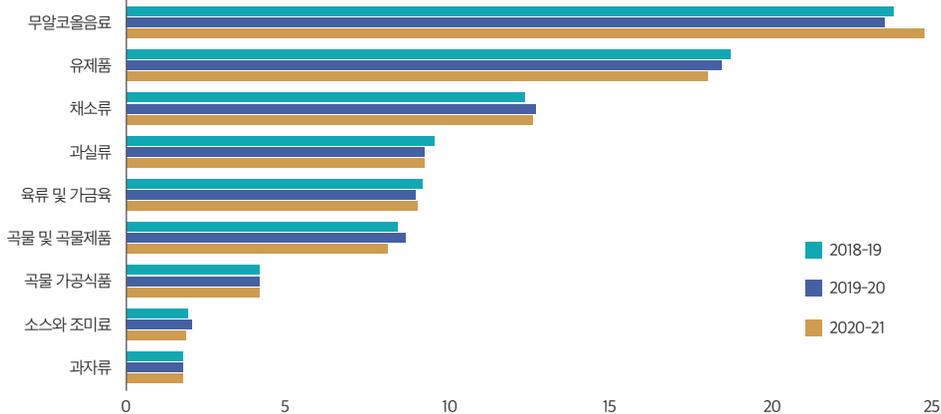
2022년 호주 식음료시장 주요 소비 트렌드

무알코올 음료 소비량 큰 폭 증가, 유제품 및 육류 대체품 급속도로 성장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22)에 따르면 2021년 식품 및 음료(주류 제외) 마트 판매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470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 품목으로는 무알코올 음료(24.7%), 유제품(18.0%), 채소(12.6%), 과일(9.3%), 육류(9.0%), 곡물제품(8.2%)으로 조사되었으며 1일 1인당 식품 소비량은 1,193g으로 작년보다 3.2g 감소하였으나 음료 소비량은 373g으로 작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알코올 음료는 6.2% 성장률을 보였으며 유제품 및 육류 대체품은 13.8% 성장했다.

주요 식품군 소비량

(단위 : %)



자료 호주 통계청(ABS)

주요식품군 성장률

(단위 : %)

주요 식품군	2018-19 to 2019-20	2019-20 to 2020-21
유제품 및 육류 대체품	13.7	13.8
무알코올 음료	0.9	6.2
씨앗과 견과류 제품	3.3	2.6
설탕제품	3.5	-5.4
곡물제품	8.9	-6.1
콩과 제품 및 요리	12.7	-9
유아용 조제분유 및 식품	-22	-26.1
전체 식음료	-15	1.2

* 하루그램의 1인당 겉보기 소비량

자료 호주 통계청(ABS)



가능성 음료, 대체 우유 소비량 증가

IBIS world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비건 인구의 증가와 과일 및 채소 소비 증가, 무알코올 맥주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2020 호주의 비건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호주는 'veganism', 'vegan restaurants', 'vegan rezepte' 등의 키워드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한 국가로 나타났다. 비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두유 등 우유의 대체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IBIS World에 따르면 호주 두유 및 아몬드 우유 제조시장의 규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중이며, 이 추세는 2022년 이전 호주의 비건, 베지테리언¹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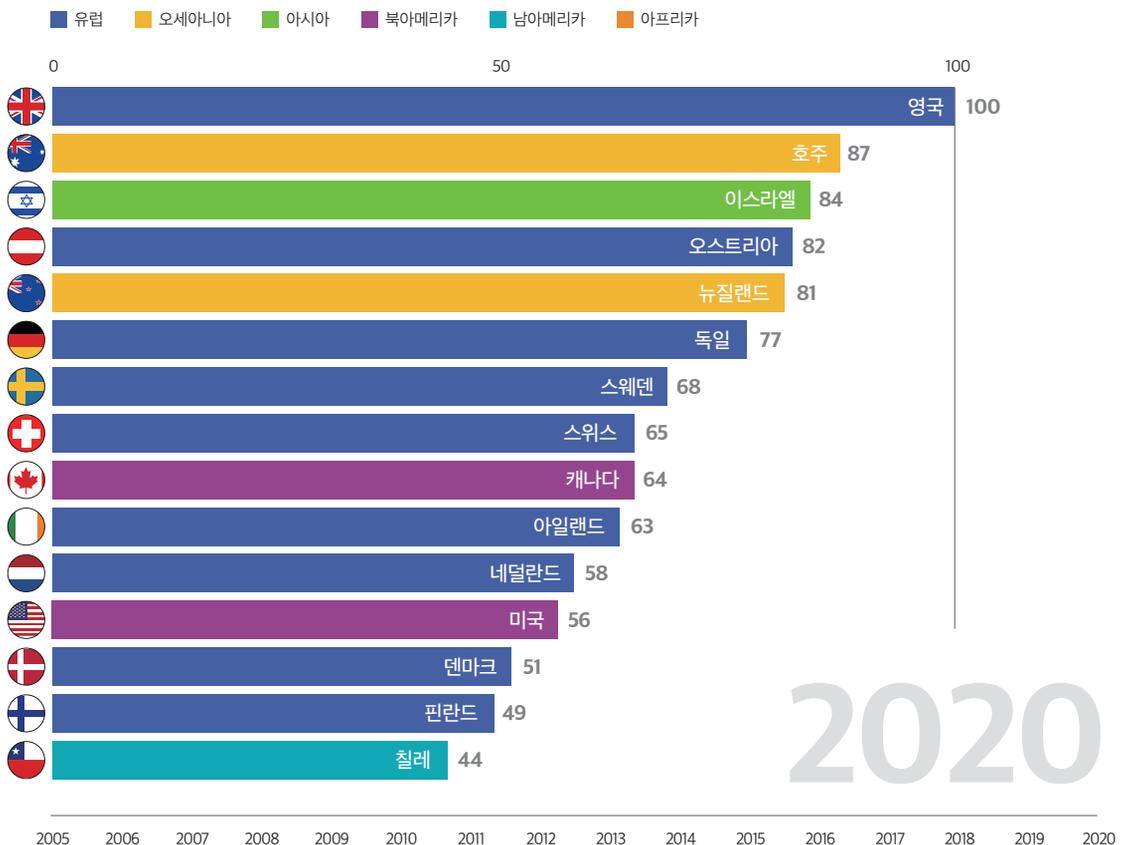
Vegan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인구의 2%, 대략 50만 명이 비건(vegan)²이라고 하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호주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 호주 소비자들은 면역강화, 건강 등의 이유로 가능성 음료를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BIS World에 따르면, 2021년 호주 가능성 음료시장의 가치가 전년대비 28% 성장해 4억 51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수치는 2017년~2022년 0.9%인 것에 3배에 달하는 값으로 가능성 음료시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1 베지테리언(Vegetarian) : 동물성 식품은 안먹지만 계란, 유제품, 꿀은 먹음
- 2 비건(Vegan) : 베지테리언(Vegetarian)보다 엄격, 동물과 관련된 모든 식재료, 생활 제품 일체 사용 안함

세계 채식주의 인기 국가

(단위 : %)



음주 습관 변화: 무알코올 소비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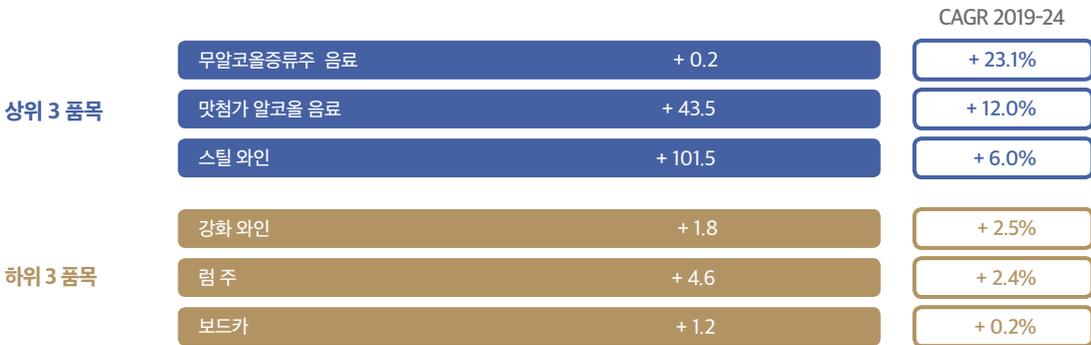
‘건강과 웰빙(Health and wellness)’의 글로벌 트렌드가 주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 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데이터의 ‘Top Trends in Alcoholic Drinks 2020 report’에 따르면 음료시장에서 무알코올 음료의 소비량은 전체 음료의 0.2%로 그 규모가 작지만 2024년까지 23.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호주 전체 알코올 소비량은 인당 연간 9.51리터로 감소하였으며 지난 50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 절주 인구 수가 2016년 28%에서 2019년 31%로 증가(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 2020)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술을 마셔야하는지’, ‘마신다면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mindful drinking’이라는 마인드셋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대체품인 무알코올 음료 소비량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류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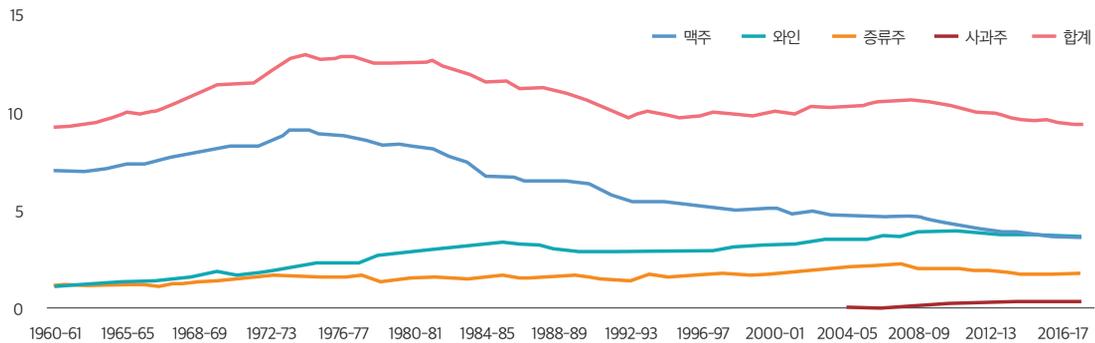
(단위: %)



자료 GlobalData Top trends in Alcoholic Drinks 2020

1인당 알코올 소비량

(단위: Litres)



* 15세 이상 1인당 리터 * 바로 마실수 있는 음료 포함 증류주 음료(미리 혼합된)

자료 호주 통계청(ABS), Apparent Consumption of Alcohol, Australia

작성자 자카르타지사 서영선

Key Point

호주의 식품 판매량에서 음료의 증가 비율과 건강한 음료의 선호도 증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유, 무알코올 음료와 같이 건강한 음료시장이 유망한 시장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호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두유 등 대체 건강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판매 확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